

여수, COP28 본격 유치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권오봉 시장 만나 지지 약속 자문위 수락도...국회 차원 논의도 본격화될 듯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의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이 이를 적극 지지해 유치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남해안남중권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날 23일 경남 사전에서 열린 'COP28 유치 추진' 워크숍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들을 만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적극 지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준비위원회(이하 유치위)에 따르면 유치위는 이날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COP28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COP28 유치를 확실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자문위원장 역할을 맡은 인연을 소개하며 "국내에 유치할 경우 남해안 여러 도시가 함께 하겠다는 남해안남중권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약속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다"며 "모든 과정에서 함께 대한민국의 정부가 유치하고 이 지역에서 반드시 COP가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유치위가 요청한 자문위원회에 대해 적극 수락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박용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의원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남해안권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의원들과 힘을 모으고, 당내에서 공론의 장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권오봉 여수시장과 유치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정치인들의 적극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의 출범식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담양에서 산타와 겨울여행 함께해요"

제3회 담양산타축제, 13일 개막 29일까지 진행 담양읍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열려



사계절 언제가든 좋은 여행자의 도시 담양에서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담양읍 원도심과 담양읍의 작은 유람마을 메타프로방스 일원을 중심으로 '산타와 겨울이야기', 제3회 담양산타축제가 개최된다.

담양군이 주최하고 담양산타축제위원회가 주관해 열리는 산타축제는 담양만의 특색이 있는 크리스마스마켓,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와 야간 경관, 산타 포토

존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담양산타축제는 메타프로방스와 담양읍 중앙공원 등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야간경관과 스탬프투어 등 담양의 관광자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중앙공원에 는 기존에 설치된 벤치에 감성문구를 담은 스토리텔링형 경관조

명과 플라스틱 박스를 재활용한 대형 산타, 크리스마스카드 포토존, 수목조명 트리 등 성탄 느낌 가득한 정원을 조성했으며, 이곳에서 마켓과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메타프로방스에서는 진입로 정면과 프로방스 내부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메타프로방스 곳곳에 산타조형물, 사랑의 열쇠길과 대형트리 터널이 관광객을 맞이하며, 메타프로방스의 각 상가도 상점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이국적인 분위기에 맞게 꾸며 거리를 수놓는다.

축제 개막식은 13일 오후 6시 메타프로방스 산타방 주무대에서 개막 퍼포먼스와 미스트롯 출신 가수 설하윤이 출연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기간 중 주말과 크리스마스 등 8일간의 집중일에는 '하늘에서 선물이 내리면'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15초 셀프영상, 버스킹, 달빛 라디오스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젊은 층은 물론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제8회 고흥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성황리 개최

군민 관광객 등 1,000여명 참여 2020년 국·도비 포함 21억 투입

고흥군은 지난 11월 29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흥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제8회 고흥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별의별난 고흥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이라는 주제로 먹거리장터, 재능기부공연,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즐거운 한마당 행사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고흥전통시장 상인들이 모금한 100만원을 고흥군 교육발

전기금으로 기탁하여 고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송기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흥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의 만남·교류의 장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에는 국비포함 10억원의 사업비로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어물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마무리하였고, 2020년에

는 국·도비 포함 21억원 사업비로 고흥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소방시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장상인과 이용자의 시설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전통시장의 특화상품인 숯불 생선구이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어물전 리모델링을 추진, 지난 11월 완료하여 고흥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소방시설 설치사업과 함께, 도비 포함 11억원의 사업비로 고흥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과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해남군 "혁신과 변화의 바람 분다"

군정혁신단 신설...3개 분야 39개 혁신과제 선정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혁신단을 신설, 혁신의 '새판'을 짠 해남군은 군민중심 일하는 방식 혁신,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쇄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행복한 일터 실현을 위한 3개 분야 39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내부 혁신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 매월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는 등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부정청탁 및 부패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청렴과 혁신을 주제로 공모 제안을 실시해,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동령령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은 통상의 노력이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관행을 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인 19명으로 구성된 '공동체활성화협의체'를 결성, 주민주도 해남형 농촌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농촌의 소멸 및 공동체 파괴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각계의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이다.



해남군의 이같은 노력은 민선 7기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강조한 청렴과 혁신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공정·공개·공평의 원칙에 따른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른 꺾는 노력으로 변화의 바람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